

의령군 수해 복구에 각계각층 성금·구호물품 답지

✎ 황재윤 기자 | ⓒ 승인 2025.07.29 15:02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의령군에 각계각층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진주상업고등학교 동문회(회장 권원만)는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220만 원을 의령군에 기탁하였다. 또 청풍건설과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각각 100만 원씩의 성금을 기탁해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가락의령군종친회에서도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 65세트를 전달했다.

주성현 탐리사이클링 대표는 무더운 날씨 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선풍기 70대를 기탁했다.



황재윤 기자 jaeyuntop@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